

야구

6

2019년 1월 7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NC 나성범·롯데 이대호·KIA 최형우의 ‘새해 소망’



NC 다이노스 나성범과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KIA 타이거즈 최형우(왼쪽부터)의 공통점. 바로 2019시즌 5년 연속 170안타에 도전한다는 사실이다. 온전히 자신의 기량으로 만들어야 하는 안타를 꾸준히 170개 이상 쳐낼 수 있다는 가치는 ‘좋은 타자’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5년 연속 170안타…‘나·대·우’의 위대한 도전

〈나성범·이대호·최형우〉

미계약 FA 무려 11명



이용규

김민성

윤성환

중소형 FA들 ‘추운 겨울’ 옵션 계약으로 내몰리나

투자에 박한 구단들 ‘계약 난항’

2019년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6일까지 계약자는 4명에 불과하다. 아직 11명이 시장에 남아있다. 대부분 원 소속구단과의 협상에만 매달려야 하는 중소형 FA들이다. 구단들이 내민 계약기간과 금액은 하나같이 박하기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명의 계약자 중 중소형으로 분류될 만한 FA는 모창민이다. 모창민은 2019년 FA 1호 계약자다. 지난해 11월 28일 원 소속구단 NC 다이노스와 3년간 총액 20억원에 합의했다. 계약금이 8억원, 연봉이 3억원, 옵션이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이다.

해를 넘긴 미계약 FA 11명에게는 모창민이 참고사례로 적용될 만하다. 그러나 이마저 ‘배부른 소리’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물론 금액까지 모창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옵션을 제시받은 FA들도 꽤 된다. ‘1년 보장+2년 옵션’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다.

구단들이 물려설 조정은 보이지 않는다. ‘4년 총액 80억원’의 상한선을 도입하려다가 실패했지만, FA 거품을 제거하려는 구단들의 의지는 확고한 분위기다. 4년간 옵션 없이 보장금액만 각각 125억원, 69억원을 확보한 양의지(NC), 이재원(SK 와이번스) 같은 거물 FA들에게만 예외일 뿐이다. 타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수준의 FA들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구단이 제시한 옵션을 꼼꼼히 점검한 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완화시키는 편이 미계약 FA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이다. 이재원이 아니라 다른 참고사례를 염두에 두는 현실인식도 지금에선 필요해 보인다. 사인&트레이드를 통해 히어로즈에서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한 2018년 FA 채태인의 경우 계약기간은 1+1년, 계약액은 옵션 4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이었다. 계약 성사 시점 역시 해(2017년)를 넘긴 지난해 1월 12일이었다.

2월부터는 스프링캠프가 시작된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FA 계약에 별도의 시한은 없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선수이기 십상이다. ‘FA 계약으로 과거를 보상받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또 FA를 바라보는 구단과 팬들의 시각도 이제는 크게 달라졌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규정타석 3할 충분조건 ‘꾸준함 증거’
서른 살 나성범, 최장 연속기록 기대
30대 후반 이대호·최형우 체력 변수

베테랑 선수들이 인정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꾸준함이다.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해내야만 하는 연속안타 관련 기록은 선수들의 가치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요소다.

2019년 5시즌 연속 170안타의 위업에 도전하는 나성범(30·NC 다이노스)과 이대호(37·롯데 자이언츠), 최형우(36·KIA 타이거즈) 등 3명은 국내 최고의 타자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2018시즌을 통해 나란히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한 이들의 위대한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170안타의 의미

한 시즌을 치르며 100안타 이상을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다. 내야안타를 쉽게 만들어내는 유형의 타자가 아니라면, 야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타구를 보내야 해서다. 2018시즌이 끝나고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박용택(40·전 LG 트윈스)의 7시즌 연속 150안타 기록이 주목 받는 것도 그래서다. 이를 넘어서 170안타는 규정타석(팀당 경기수×3.1)을 채운 타자들의 3할 타율 달성을 위한 충분조건이기도 그만한 큰 의미를 지닌다. 한마디로 KBO리그에서 인정받는 타자들을 상징하는 지표라는 얘기다.

●최초의 금자탑 세운 나성범

KBO리그에서 가장 먼저 4년 연속 170안타의 금자탑을 세운 인물이 나성범이다. 2018년 9월 30일 고척 히어로즈전에서 기록을 달성했다. 2015시즌 184안타를 기록

하며 시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30세의 젊은 나이와 장타생산 능력이 뛰어난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 부문의 신기원을 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메이저리그(MLB) 진출 등의 변수가 없다면, 가장 오랫동안 기록을 유지할 것이 유력한 타자다. 이와 별개로 6시즌 연속 150안타-20홈런 행진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대호, 최형우와 동일 시즌에 기록을 달성했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은 나성범의 몫이었다.

●이대호·최형우, 기량 유지할까

이대호는 지난해 10월 4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역대 두 번째로 기록을 달성했다. 2010시즌 174안타를 기록한 이후 8시즌이 걸렸다. 일본프로야구(NPB)와 MLB에서 보낸 5시즌(2012~2016시즌)을 제외하면, 이대호의 연속시즌 170안타 기록은 이미 수년간 진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법 큰 체구를 지녔음에도 타격 정확성이 뛰어나 당분간 이 기록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최형우도 이미 꾸준함을 입증한 지 오래다. 2013시즌부터 6년 연속 3할 타율과 150안타, 25홈런 이상을 꾸준히 기록 중이다. 2014시즌부터는 5년 연속 출루율 4할 이상을 기록하며 팀 득점에도 앞장섰다. 2015시즌 174안타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 6일 인천 SK 와이번스전에서 4년 연속 170안타 대열에 합류했다. 솔한 우여곡절 끝에 투수 유형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타자로 변신한 것이다.

문제는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둘다 어느새 나이가 30대 후반에 접어든 터라 몇 년 뒤부터는 체력 저하에 대한 의문 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그 시기를 이겨내면, 이들이 최장시즌 연속 170안타 기록의 주인이 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장재영 “아빠, ML 도전할래요” 장정석 감독 “아들아, 네 선택을 응원할게”

〈덕수고〉

〈카움 히어로즈〉

최고구속 152km…‘괴물’ 고교생
고1 선수 ML 신분조치는 이례적
장감독, 주위의 지나친 관심 염려

아마추어 시절 두각을 드러냈지만 프로에서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유니폼을 벗었다. 비록 현재는 감독으로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지만, 스타플레이어가 아니었던 탓에 은퇴 직후 행보도 가시밭길이었다. 장정석(46) 카움 히어로즈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 어두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때문에 ‘두 아들이 야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아버지의 격정을 먹고 자란 두 아들은 그러나 ‘야구인 DNA’를 숨기지 못한다. 장 감독의 첫째 아들 장재영(17·덕수고)은 이미 아마추어 야구에서 누구보다



장재영

장정석

‘핫’하다. 아직 성장이 멈추지 않은 나이임에도 키는 벌써 186cm에 이른다. 지난해 최고구속은 152km를 찍었다. 같은 또래 선수 가운데 압도적인 기량을 자랑한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해 6월 KBO에 장재영의 신분조치를 요청했다. 고교 2~3학년 선수들에게는 신분조치

요청이 종종 들어오지만, 1학년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선수 본인도 어느 정도는 욕심을 내고 있는 모양새다. 장재영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물론 아버지, 감독님(덕수고 정운진 감독)과 상의를 하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메이저리그에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아마추어 선수의 메이저리그 직행 성공 사례는 박찬호(은퇴), 김병현(펠릭스), 추신수(텍사스) 이후 대가 끊겼다. 한때 아마추어 선수들의 미국 직행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가 있었지만 결과는 대부분 아쉬웠다.

그렇다면 아버지로, 야구 선배로 장재영을 바라보는 장 감독의 생각은 어떻게. 장 감독은 6일 “내심 아들들이 야구를 안 했으면 싫었다. 하지만 둘 모두 유니폼을 입고 있고, 심지어 잘해주고 있다. 내 생

각이 무조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고교생의 미국 도전이 쉽지 않다는 사례가 많지 않다. 내심 안 갔으면 싫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길은 스스로가 생각할 나이다. 현명한 선택 내리면 믿고 지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 감독은 인터뷰 내내 조심스러움을 숨기지 않았다. 아직 영글지 않은 아들이 행여 주위의 지나친 관심에 흔들릴까 염려했다. “야구 선배로서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인생만큼은 강조하고 있다.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줘야 한다”며 “진로를 선택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남았다. (장)재영이가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도록 그 부분만 신경 쓸 생각이다.”

아버지의 말에 아들을 향한 진심어린 사랑이 듬뿍 담겨있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세이부 감독 출신’ 다나베, 코치로 한화행…왜?

“내 야구의 깊이를 더하고 싶었다”

한화 이글스 다나베 노리오(53) 1군 타격코치는 일본프로야구(NPB)에서 화려한 경력을 뽐낸 인물이다. 선수로는 통산 1299경기에 출장해 타율 0.268, 1374안타, 87홈런, 442타점을 기록했고 유격수와 2루수, 3루수를 맡아 베스트나인·골든글러브·올스타에 두 차례씩 선정되며 세이부 라이온즈의 황금시대를 이끈 스타플레이어였다. 2015~2016시즌에는 세이부의 1군 감독으로 일했다. 스타플레이어 출신 감독이란

의미다. 그가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알고 있는 야구에 깊이를 더하고 싶었다.”

한화는 2018시즌이 끝난 직후부터 일본인 타격코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2017년 두 차례 한화 인스트럭터로 선수들을 지도했던 다나베 코치는 적임자였다. NPB 시절부터 타격과 수비, 주루 등 야수들의 전반적인 능력치를 향상하는데 일조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화 박종훈 단장은 “수석코치의 일이 많아 타격과 트 코치를 따로 두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



다나베 노리오 코치

했다.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세이부 감독 시절에도 선수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만큼 믿음이 두터운 감독이다. 2014시즌 중반 감독대행 승격 당시 세이부 선수들은 전임 감독 이하라 하루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하라 감독은 머리와 유니폼 길이를 단속하고, 장대비가 내리는 그라운드에서 지옥의 러닝을 시켰다. 이때 선수들을 다독이고 하나로 뭉치게 만든 이가 다나베 감독이다. 세이부의 프랜차이즈 스타 구리아마 다쿠

미는 2016시즌 통산 1500안타를 기록한 뒤 “과거 다나베 타격코치와 죽기 직전까지 밀어치기 연습을 한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나베 감독의 지도 철학은 ‘인간력’이다. “믿음 없이는 좋은 팀으로 발전할 수 없다. 선수의 능력을 믿고 지도하다 보면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 번 주전으로 올라선 선수는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참고 기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만큼 공격적인 자세를 중시한다. 젊은 타자들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산 기자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